



제278회 제1차 정례회

# 시정질문·답변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 박 주 화 의원

- ☒ 효율적인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 체력증진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 박 주 화 의 원

### ●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독서 진흥정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진흥현황  
은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독서 진흥예산은 2018년 3,293억 원에서 2023년 5,607억 원까지  
증액되었지만 성인 독서율은 2017년 62.3%에서 2023년 43.0%까지 하락하였고  
성인 독서량은 9.4권에서 3.9권까지 떨어졌으며 성인 도서 구입량은 4.8권에서 2.4  
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체부는 독서 가치 공유와 독자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앞세워 비독자의 독자 전환 및 책 친화기반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였을 때 더 이상의 보편적인 책 구입 지원이나 인프라 조성이라는 사회구성원 간의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독자가 나타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올해 예산 중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시비 약 14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대전 북스타트, 영유아 북스타트 등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책 지원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과연 책 구입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책꾸러미를 배포한다고 하여 독서문화 진흥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릴 도서관이 부족하여 독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려면 부모부터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레 아이는 이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독서모임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 사람들 간의 소통과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독서모임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독서모임은 개인의 독서습관을 장려하고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임을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나누면서 독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독서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서모임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람 간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독거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독서모임과 관련된 사업은 책 읽는 사업 지원으로 사단법인 단체에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지인분들과의 독서모임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지만 대전시에서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독서모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뿐 독서모임을 지원받기 위하여 아무리 포털사이트에 대전 독서모임 지원을 검색해 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공공도서관 및 보다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사회계층별 독서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모임 지원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앞으로 대전의 독서문화 진흥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우리 대전은 일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첨단기업 유치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산업과 기업이 유치된다 하여도 시민의 올바른 의식과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다면 과연 대전이 일류도시라 당당하게 불릴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문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은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형성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단연코 독서의 진흥일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고 시장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원 체력증진 시스템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지역 내에서 교권 보호대책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대낮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그해 9월, 대전에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전교육계는 더욱 참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운영, 교권 침해 예방교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교 1변호사제를 도입하여 법률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교육당국의 예방과 대응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현재의 교권 보호대책은 주로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사후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 위험상황에 직면한 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호신술을 배우거나 특강을 듣고 관련 동아리에 참여해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가한 사례는 최근 5년간 1,13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172건에서 2022년 36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와 올해의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인데 최근의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에는 에듀힐링센터라는 교권보호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최근에는 센터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도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교권 침해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사의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자신의 몸을 교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대전시에 권역별로 합기도나 태권도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센터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저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올해 1학기에는 45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는 151개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개 등 총 1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는 2학기 전면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2학기 전면 확대를 위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물적·프로그램 차원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교사, 실무 지원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늘봄학교 지원인력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업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인력풀 공개모집을 통해 업무 전담인력 선발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력풀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담인력의 연수, 배치 계획 등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봄학교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가올 2학기에는 151개 학교에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수 감소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을 위한 공간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교육감님께서서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물적 공간은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에는 특수학교에도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 대전가원학교와 같은 거대 특수학교의 공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에 양질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대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1919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2023년 7월 도서관과 기록전시관을 결합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32명은 저녁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 이동도우미 인력을 통해 하교 후 도서관 까지 함께 이동하는 동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늘봄형 도서관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산성어린이도서관 등에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민선 8기 9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서는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현황과 독서문화 활성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독서문화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박주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이 독서보다는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 또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보니 독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또 요즘 아이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방과후에 많은 학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 이외에 워낙 학습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독서할 시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정서 함양이나 깊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박주화 의원님 말씀대로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기준으로 1,1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은 책 읽기나 독서동아리, 북토크 등 독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우리대전 북스타트를 통해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일부 가장 영향을 미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 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도서관에 매년 18만 권 이상의 도서를 확충했고 4만 2천여 종의 전자책과 12만 점의 시청각자료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역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지역여건에 맞게 스마트도서관 및 북카페 등 독서공간을 조성하는 1동 1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개 행정동 중 도서관을 보유한 동은 57개 동입니다.

미보유가 25개 동입니다.

향후 저희는 도서관이 없는 25개 동에도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독서문화 활성화 발전방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는 82개의 독서동아리 및 독서모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8,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여건은 인구 100만 명 기준 도서관 수가 17개로 17개 시·도 중에 16위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1동 1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증가율이 8.7%에 그치는 등 타 지역보다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우선과제로 도서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5년 3월에 동대전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고, 2025년 말에는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이 완료되겠습니다.

2028년에는 서대전시립도서관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9년에는 대덕구에 대전시 대표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1동 1도서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식·정보·문화·놀이·소통의 공간으로 독서문화 향유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259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우수한 도서관은 지원을 더 강화하고 부실 도서관은 지원을 배제하면서 작은도서관이 내 집 앞 독서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더불어 독서 활동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세대별 맞춤 독서프로그램 운영, 문턱 없는 야외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실상 주말에는 가정에서 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과 외는 방과후돌봄과정에서,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돌봄과정에서 독서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박주화 의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박주화 의원님께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체력증진방안과 대전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위해 긴급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에듀힐링센터의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해치료비, 위협 보호 대처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교 1변호사제의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교육을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를 관리자, 업무담당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5회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사의 기초체력단련 프로그램 제공은 아주 중요한 방안입니다.

대전시 권역별로 합기도, 태권도 등 체력단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안내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 중 건강관리 항목을 통해 체력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지친 교사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단련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은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양육권이 함께하는 상호 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151교, 특수학교 6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인력, 공간, 프로그램, 예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전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무행정 늘봄실무원을 모든 대상 학교에 각 1명씩 총 157명을 7월 1일 자로 배치하고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늘봄학교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아동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설치함으로써 학교의 업무경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늘봄공간 마련을 위해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전환하는 교사에게는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업무 및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교사연구실을 2학기 시작 전까지 구축 완료할 것입니다.

대전가원학교와 같은 과대 특수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겸용교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6개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림청,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 11개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늘봄학교에 제공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의 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책을 즐기며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거점형 늘봄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고 충남중학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가칭)대전문창공공도서관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주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박주화 의원(1차 보충질문)

방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추가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시장님한테, 도서 지원 조례지요, 도서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해보면 ‘아, 시설이 너무 아깝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문턱이 낮아서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부분이 고요.

혹시 우리 시장님 최근에 도서관 가서 책 읽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 ◎ 박주화 의원

시장님도 시간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정말 책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책 볼 시간들이 없다는 얘기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도 책이 참 많은데 가보면 항상 늘 책만 있고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소소한 모임이든 단체든 회의 끝나고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분들에게 도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해주면 모임도 하고 또 모임 끝에 독서토론도 한다면 서서히 책이 가까워지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 보일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날 때, 시간 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게 되고 그거를 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시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덩달아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서 좀 무난하게 책 읽는 대전시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감님에게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 그런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선생님들이 일단 마음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는 체력 단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향간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운동을 시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